

제24호·2016년 11월 9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러·중, 총리급 회의 통해 중-러-몽 경제회랑 협력 가속화하기로 합의

-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정례 총리회담에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러시아 극동개발과 중국 동북3성 개발이 포함된 중국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'중-러-몽 경제회랑' 개발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함
 -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0일 러시아의 투르드네프 부총리 겸 극동개발 특사와 중국의 왕양 대외경제 담당 부총리간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최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됨
 -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부터 양측 부총리가 이끄는 러시아극동-중국 동북3성지역 협력이 사회를 열어왔으며, 향후 양국은 동 협력이사회를 정부간 공동위원회로 전환하여 양국의 정례 총리회담에 편입시키기로 함
- 러중 양국은 향후 러시아 극동 개발 및 동북3성 개발을 위해 에너지, 광업, 항공, 조선업, 농업 및 임업, 항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함
 - 특히 양국은 무역 확대를 위해 아무르강 등 국경하천 교량 건설, 국경통과 송유관 부서, 고속도로 국경통과지점의 교통인프라 개선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
-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3성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은 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차 동방경제포럼(EEF)과 같은 시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통해 양국이 전면적인 협력에 합의하면서 본격화했음
 - 당시 양국은 러시아 극동개발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공동의 이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함
- 농업 분야의 협력은 최근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한 러중농업개발기금(RCFAD, Russian-Chinese Fund for Agro-Industry)에 의해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2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됨으로써 구체적인 결실을 봄
 - 러중농업개발기금은 2015년 12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(이하 '국가발개위')간 양해각서를 통해 설립됨
 - * 동 농업개발기금 지분의 51%는 러시아가 극동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극동개발기금(FEDF)이 보유함



- 2016년 1월, 중국 농업부는 2050년까지 중국 중산층 확대에 의한 육류 수요가 금액기준 연간 1천5백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,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러시아와의 농업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
- 2016년 9월 초, 제2차 동방경제포럼(EEF)을 계기로 러중농업개발기금은 러시아측 농축산 관련 회사 2곳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돈육가공, 대두 및 밀 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함
 - * 양돈 및 돈육가공공장 건설은 아무르주 최대 축산가공회사인 Ratimir 사가 맡게 됨
 - * 대두 및 밀 가공공장 건설은 아무르주 최대 곡물회사인 AmurAgro 사가 맡게 되며, 연간 생산 규모는 대두 18만 톤, 밀 11만 톤 수준임
- 공사비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러중농업개발기금이 10%, 기업이 10%를 부담하며, 나머지 80%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은행이 조달하기로 함
- 돈육가공공장과 곡물가공공장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지정한 선도개발구(TASED) 12개 중 하나인 아무르주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에 들어설 예정임

<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 위치>



자료: 극동개발부

- 2015년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이후 러시아 극동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이 본격화된 이래 무역확대 노력에 의해 러시아 극동 대외협력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함
- 2016년 상반기 중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대외무역 총액의 1/4 이상을 차지하며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섬



- 러중 양국은 특히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3성의 공동발전 위해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연결이 중요하다고 인식, 관련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
 - 2015년 9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시 러중 양국은 러시아 극동개발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공동이해를 확인하고, 교통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 - 중국측이 추진하는 중-러-몽간 경제회랑은 크게 '동부노선'(東線), '중부노선'(中線), '서부노선'(西線) 등 3개 교통루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러시아 극동개발과 직결되는 교통루트는 동부노선이라 할 수 있음
 - 동부노선은 주통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(에서 출발해 중국 하얼빈 및 만저우리를 지나 다시 러시아 치타를 거쳐 유럽으로 나가는 유라시아대륙교(TSR 지창)의 동쪽 구간을 말함
 - 중부노선은 중국의 텐진에서 시작해 베이징을 경유한 뒤 몽골 울란바토르와 러시아 울란우데를 지나 유라시아대륙교에 합쳐지는 구간임
 - 서부노선은 중국 서부로부터 몽골을 지나 유라시아대륙교에 합쳐짐
- 동부노선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 항만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지목되나 중국측은 자루비노항, 포시에트항도 포함하고 있으며, 중국은 우선적으로 동부노선 교통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
 - 중국은 자루비노항-훈춘-아얼산-초이발산-치타로 이어지는 교통루트를 중-러-몽 경제회랑 동부노선의 핵심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음
 - 중국측은 양국 국경하천인 아무르강 상에 2억3천만 달러의 교량을 건설하기로 함
 - 항만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는 하바롭스크에 인접한 사마르가를 연간 물동량 8천만 톤의 대규모 상업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항만개발에 중국산업은행 등 중국측 금융기관도 참여하고 있음(『KMI 극동러시아 동향』 제22호 관련 기사 참조)
- 향후 러중은 러중박람회, 중국-동북아박람회,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등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러시아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

자료 : www.gov.cn(검색일 : 2016년 11월 7일), www.fondvostok.ru(검색일 : 2016년 11월 7일)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물류동향

오상 홀딩스, 러시아에 새로운 물류창고 건설

- 프랑스 소매·유통기업인 오상 홀딩스(Auchan Holding)는 러시아 모스크바주 도모데모브스크(Domodedovsky District), 유즈네 브라타(Yuzhnye Vrata) 새로운 물류창고를 건설할 예정에 있음
 - 물류창고 건설에 약 60억 루블이 투자될 것이며, 면적은 약 13만 8,000㎡임
 - 건설사로는 래디어스 그룹(Radius Group)이 선정되었으며, 이미 유즈네 브라타 산업단지 내 144ha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 중에 있음
 - 새로운 물류창고 건설 이유는 이 지역이 인프라 개발 및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대형 건물 관리 등에서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기 때문임
 - 오상 홀딩스는 이탈리아, 스페인, 폴란드, 중국, 베트남 등 16개 국가에 진출하였으며, 러시아에는 2002년 첫 매장을 열었음
- 새로 건설될 물류창고는 러시아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오상 홀딩스의 물류창고로, 230여개 이상의 트레일러가 동시에 상·하차가 가능할 것임
 - 또한 물류창고는 최신 기술로 건설되면, 러시아 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창고가 될 것임
 - 유즈네 브라타 산업단지에서 러시아 중앙지역 50여개 이상의 오상 매장으로 운송될 예정이며, 효율적인 물류라인을 구축하고자 함
- 오상 홀딩스는 현재 러시아 경제 및 소매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류품질을 개선하여 타사 대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
 - 또한 러시아 소매시장은 큰 잠재력이 있으며, 러시아 내 오상 홀딩스의 발전을 위해서 물류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함

자료 : http://logirus.ru/news/warehouses/Ashan_zamahnulsja_na+samyj_bolshoj_sklad_dlja_odnoj_kompanii_i_gotov_potratit_na_jeto_6_milliardov.html(검색일 : 2016년 10월 24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